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89년 10-11월분) 15종

나무百科(3)

任慶彬 지음

34종의 나무의 생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책. 사진, 그림, 학명, 구체적인 분포지, 특징은 물론 그 용도, 발화시기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문헌에 기록된 나무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그 나무와 관련된 설화나 일화도 소개하고 있어 흥미롭다. 수록된 나무는 가시나무, 계수나무, 굴나무, 동백나무, 무궁화나무, 벽오동나무, 산수유나무, 소나무, 왕대, 진달래나무, 찔피나무, 칩, 해당화 등이다.

일지사 / A5변형 / 446면 / 4000원

한국사회 어디로

金大煥 지음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쉽게 풀어 쓴 수필집. 급격하고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의 혼재가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관리」지에 연재했던 글을 한데 묶었다.

매일경제신문사 / A5신 / 240면 / 3500원

韓國文化의 뿌리

金烈圭 외 지음

'나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 전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찾고자 한 책. 10가지 주제를 놓고 벌인 3인의 대담형식으로 엮여졌다. 과거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왔으며 그 특색은 무엇이었는지를 생활양식과 문화양식에 대한 점검으로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기능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조각 / A5신 / 224면 / 400원

海燕詞

김여정 지음

1968년 「현대시학」에 「南海島」「和音」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시인의 신작시집. 「바다제비의 노래」라는 뜻의 이 시집에는 인생을 바다위를 나르는 제비에 비유한 103편의 연작시가 수록돼 있다. 시인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탈출하려는 몸부림을 詩作과 인생, 사랑속에서 구하고 있다.

문학아카데미 / A5변형 / 150면 / 2500원

생각하며 살아가는 까닭은

소홍렬 외 지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연 철학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철학교수 51인이 적은 에세이집.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난립과 도덕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혼란 속에서 찾아야 할 자유와 사랑, 이성, 진리에 대해 일깨워준다. 소홍렬, 김태길, 이명현, 김형석, 안병욱 교수 등의 글이 실렸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270면 / 3000원

쫓기는 知性들

백두성 지음

장편 「유산없는 젊음들」을 선보인바 있는 작가의 장편소설.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꿈과 사랑을 간직하려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정신분열증, 노이로제까지 치달는 현대인의 실존적인 문제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정봉래는 "리얼리즘적인 소설기법으로 서민들의 명암이나 애환을 극명하게 묘사했다"고 말하고 있다.

유럽 / A5신 / 408면 / 4500원

삶과 꿈 사이에서

千二斗 지음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耳順을 맞이하여 엮어낸 수필집.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했던 수필들을 한데 모았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모저모를 간결하게 적은 글과 학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술회한 글들을 실었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4장은 저자의 해외여행기.

청한 / A5신 / 306면 / 3500원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세계

사또 후미다가 지음 / 김부섭·옮김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쉽게 설명한 대중과학서. 갈릴레이나 뉴턴의 물리학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상대성이론이 예언하는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아인슈타인의 성장과정과 과학자로서의 태도, 생애를 기술하고 있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살필 수 있다. 원저에는 없는 '과학기술출판연구회'의 '아인슈타인의 사회사상'을 덧붙였다.

창작과비평사 / B6 / 192면 / 2500원

한말 의병전쟁

조동걸 지음

국민대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1894년부터 일제하까지의 의병운동을 고찰한 책. 1894~1896, 1904~1907, 1907~1909, 1909~1915년 네 시기로 시대구분해서 그 구국운동의 실상을 고찰했다. 의병운동의 사상적 원류로부터 발단·전개과정을 살피고 그 이념이나 성격의 변화과정도 살피고 있다. 저자는 의병운동의 한계점으로 의병운동이 봉건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음을 들고 있다.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B6 / 214면 / 1200원

천개소문전 / 몽배금태조

박은식 지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박은식선생이1911년 민족적 통분을 안고 쓴 위인전기. 「천개소문전」을 통해 저자는 천개소문을 본받아 한국민족이 국권 회복을 위해 투쟁, 성취할 것을 강조하고, 「몽배금태조」에서는 무치생과 황제와의 대화 형식으로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훑어보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B6 / 136면 / 1200원

藝術과 文明

케네드 클라크 지음 / 최석태 옮김

서양의 문명과 예술의 역사를 미술사가인 저자의 해박한 지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책. 로마의 물락과 12세기 프랑스,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건축물과 회화, 조각 등에 대하여 저자 자신의 감상을 얘기하듯 들려주고 있다. 저자의 일관된 사관에 입각하여 서양문명의 형성과정을 미술사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서양문명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예출판사 / A5신 / 332면 / 5000원

인간의 찬가

칼릴 지브란 지음 / 김승희 옮김

영혼의 세계를 특유의 감성으로 노래한 칼릴 지브란이 청년시절에 쓴 초기작품들과 25세때 파리에 머물면서 쓴 산문시를 한데 모은 책. 시인, 철학자, 신비주의자 등 그에게 붙여진 수많은 명칭에서 보듯,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불멸과 무한의 세계를 꿈꾸는 그의 시세계가 잘 나타나 있다. 풍부한 감성이 느껴지는 이 산문시를 통해 완전한 자아를 꿈꾸는 작가의 세계를 보게 된다.

문예출판사 / A5 / 124면 / 2000원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잃어버린 동족들

김은국 지음

재미작가 김은국씨가 중국, 소련 등지의 풍경과 교포들의 생활상을 주로 하여 직접 찍은 사진과 에세이를 함께 묶은 포토에세이집. 북경, 심양, 장춘, 하르빈에서 백두산, 타쉬켄트, 모스크바 등지에 이르는 삶의 여러 모습을 담고 있다. 현대화된 건물, 텃밭목의 초라한 집들과 시장에서 흥정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거리의 이런 저런 풍경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을유문화사 / B5변형 / 244면 / 9500원

온라인생활

유경희 지음

PC통신의 정착에 힘쓴 저자가 PC로 게임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혹은 PC통신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쓴 '전자수필'. 한글정보화가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당면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정보활용의 방법을 일러준다. 또한 저자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미국, 일본, 방콕 등의 정보통신의 현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록으로 상세한 Compuserve사용법을 실었다.

매일경제신문사 / A5신 / 282면 / 3500원

을지문덕/이순신전/최도동전

신채호 지음

구한말 민족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선생이 일간신문에 연재했던 위인들의 전기들을 묶은 책. 살수대첩의 위업을 남긴 을지문덕, 임진왜란을 막아낸 이순신, 고려를 지켜낸 최영 등 세 영웅의 일생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가 곳곳에 스며있다. 저자는 세사람을 각각 '우리나라 역사상의 제1위인', '수군의 제1위인', '우리나라 巨傑'로 평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B6 / 224면 / 1200원